# 日・中共修交斗 韓國의 對日農產物輸出

### 宋 在 根\*

- 1. 中共의 外交戰略과 對日修交
- Ⅱ. 韓・中共의 對日貿易推移의 商品構造
- Ⅲ. 中共의 農業問題斗 韓・中共競爭關係
- IV. 中共의 輸出潜在力斗 展望

#### I. 中共의 外交戰略과 對日修交

日・中修交가 우리나라의 對日輸出에 어떠한 影響을 미칠것인가 하는 問題를 올바로 파악하 는데 있어서는 첫째, 華・鄧政權이 展開해가고 있는 外交戰略의 展開過程을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 理由는 최근 中共內外에서 나타나고 있는 皮相的인 現象만을 보고는 事態進展의 實相을 判斷하는데 誤謬을 犯할 우려가 많기 때문이다.

華・鄧政權이 對外戰略의 基本으로 삼고 있는 것은 毛澤東의 國際情勢觀이라 할 수 있는「3世 界論」이다.

毛澤東은 世界를 3개로 구분한다.

즉 美·蘇曼 超强大國이라 하여 第1世界, 西歐와 日本, 캐나다, 大洋洲 등 民族부르죠아 국가를 第2世界,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등 開發途上國을 포함한 反蘇獨自路線을 걷고있는 社會主義圈의 일부 국가까지를 第3世界에 포함시키고 있다. 毛澤東은 이 중 超强大國인美蘇는 基本的으로는 「世界人民」의 歐이지만 美

國은 相對的으로 衰退해가는 大國이라는 것이고 蘇聯은 점점 강력해져 가고 있는 大國이기 때문 에 美國보다는 蘇聯쪽이 더욱 위험한 존재인 「主敵」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蘇聯과 대항하기 위해서는 第2世界 및 第3世界에 속하는 국가들은 물론 일시적 同盟 者로서 美國까지를 포함한 反蘇 統一戰線을 형 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華·鄧政權은 毛澤東의 이러한 戰略에 따라 美·日 유럽등을 등에 업고 蘇聯을 牽制하여 시 간을 벌면서 農業,工業,國防,科學技術의「4 大近代化」를 完成하여「今世紀末까지 中國의 國 民經濟를 世界의 前列에 서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世界戰略의 一環으로서 中共은 1978年 2月「日·中共長期貿易協定」을 체결했다.

內容인즉 日本이 中共에 각종 플랜트, 建設用 資材, 技術, 노우하우 등을 輸出하고 그대신 原料, 原料炭, 一般炭 등을 輸入하여 8年동안(1978 ~85年)에 200億달러 상당의 交易을 할 것이라 는 것이다.

日・中共長期貿易協定과 거의 때를 같이 하여 우리의 注目을 끄는 것은 華國鋒의 發言이다.

華는 第5期全人大會의 「政治活動報告」에서 「對外貿易을 많이 發展시켜야 한다. 輸出貿易은 大量의 輸出이건 小量의 輸出이건 留意해야만

<sup>\*</sup> 海外經濟研究所 研究企劃室長.

한다. 農產物의 輸出을 增加시킴과 同時에 **鑛工** 業製品의 輸出에서의 比重을 높이는데 노력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했다.

이 말은 華國鋒政權이 鄧小平路線에 立脚해서 對外經濟政策面에서 過去와는 달리 柔軟性을 갖고 對處해 가겠다는 決意의 表明으로서 對外貿 易을 「必要惡」이라 하여 極力 억제하는데 置重 했던 「四人幇時代」의 對外貿易政策과는 비교가 안될 만큼 대답한 것이다.

그러나 華國鋒政權의 이러한 政策變化는 어디까지나 「4大近代化」를 달성하기 爲한 手段일 뿐中國大陸을 開放經濟體制로 이끌어 가겠다는 것을 意味하는 것은 아니다.

中共이 현재 指向하고 있는 對外貿易의 擴大는 「自力更生을 主로하고 國際的 協力을 從으로 한다」는 經濟建設의 基本路線에 따라 움직이고 있을 뿐이다.

즉 中共은 10億에 가까운 莫大한 人口와 풍부한 既存資源을 갖고 있기 때문에 自己完結的인 工業體로의 확립이 基本的으로 可能하다는 認識에 立脚해서 經濟政策의 基本方向을 設定해 가고 있는 點은 毛澤東 以前이나 現在나 아무런 變化가 없다.

다만 社會主義工業化의 過程에서 莫大한 人口, 즉 勞動力을 組織的으로 技能化하고 旣存資源의 開發에 必要한 資本과 技術을 어떠한 方法으로 신축하게 조달 하느냐 하는 課題를 안고 各 派 閥間의 路線鬪爭이 展開되어 왔을 따름이다.

따라서 過去나 現在나를 막론하고 自己完結的 인 工業體系를 기반으로 한 社會主義强國을 建 設한다는 最終目標에는 아무런 變化도 없는 것 이다.

# 1. 韓國・中共의 對日貿易推移의 商品構造

우리나라의 輸出에서 絕對的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 日本이 中共과 國交를 正常化 했다는 것은 韓·日간의 貿易추세를 變化시킬 수 있는 重要 한 變數로 작용할 것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韓國의 對日輸出은 1966年度에 66.3百萬달러이던 것이 1977年에는 2,148.3百萬달러로 32倍以上 增加하였으며, 對日輸入은 1966年에 293.8百萬달러에서 1977年에는 3,926.6百萬달러로 13.4倍 增加하였다.

우리나라의 總輸出에서 占하는 對日輸出比重은 1966年의 26.5%에서 1977年에는 21. %로 減少하였고 對日輸入比重은 1966年의 41.0%에서 1977年의 36.6%로 줄어들었으나 절대액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13倍 增加하였다.

한편 日本의 立場에서는 對韓貿易이 日本 全體의 對外貿易에서 占하는 比重은 1966年의 2.1 %에서 1977年에는 4.1%로 늘어났다. 이 중 對韓輸出比重은 1966年의 3.4%에서 1977年에는 5.1%로, 對韓輸入比重은 1966年의 0.74%에서 1977年에는 3.0%로 각각 늘어났다.

이로 인해 韓國측의 貿易收支는 韓·日間 貿易의 急伸張과 比例하여 極甚한 불균형을 招來하였다. 즉 1966年度 韓·日間 貿易에서 韓國側 貿易赤字는 1966年의 228百萬달러에서 1977年에는 1,778.3百萬달러로 8倍 增加하였으며 1978年에는 33億달러線을 넘어 섰다.

한편 日本과 中共과의 貿易去來도 1966年에 中共의 對日輸出이 306百萬달러이던 것이 1977 年度에 1,938百萬달러로 6.2倍 늘어났다. 그런데 1966年度 우리나라와 中共의 對日輸出 規模를 比較해 보면 中共이 우리나라 對日輸出 規模의 4.3倍나 되었으나 우리나라의 輸出主導 型 政策에 따른 輸出增大로 1977年末 現在는 우 리나라의 輸出規模가 앞질러 中共의 규모는 우 경우는 鐵鋼(53.0%), 合成纖維短纖維(3.4%), 合成纖維織物(3.3%), 化學肥料(7.7%)등이 大 宗品目으로 되어 있다.

이를 좀 더 具體的으로 보면 1977年末 現在 日本市場에서의 市場占有率은 우리나라가 3.0%,

表 1 日本의 對韓 中共 輸入 推	輸入 推科	鹼	中共	對韓	日本의	長 1	2
--------------------	-------	---	----	----	-----	-----	---

(單位:1000달러, %) Ħ 本 中 共 葳 年度別 總輸入額 伸張率 對日輸出額 伸張率 占有率 對日輸出額 伸張率 占有率 1970 18,881,168 228, 970 1.3 71.0 1, 2 253, 818 8. 2 71 19,711,749 4, 4 274, 421 19.9 1.4 323, 172 27, 3 1.6 491, 116 72 23, 470, 711 19, 1 425, 992 52, 0 2. 1 55, 2 1.8 38, 313, 604 63, 2 1, 207, 309 98.3 2.5 73 183, 4 3. 2 974,010 74 62, 110, 456 34.0 2.1 62, 1 1,568,041 29.9 2. 5 1,304,768 **7**5 57, 863, 088 1, 307, 999 2, 3 1,531,076 17, 3 2,7 △16.6 76 1,370,915 △10.5 2, 1 64, 798, 968 12.0 1, 916, 773 46.5 3.0 2, 2 77 70, 808, 654 9.3 2, 113, 399 10.3 3. 0 1,547,344 12, 9

資料:日本關稅協會,外國貿易槪况 1977.12

리나라의 70%정도에 지나지 않고 있다.

輸入에 있어서도 1966年度의 경우 中共의 對日輸入 規模는 우리나라의 것에 比해 90%정도로 비슷했으나 1977年末 現在는 50%정도로 우리나라 對日輸入규모의 切半에 불과하다.

한편 韓國과 中共의 對日輸出 主要商品構造를 比較해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食料品 중에서 魚 介類와 纖維製品이 大宗을 이루고 있다. 즉 1977 年 우리나라의 對日總輸出에서 가장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纖維製品이 31.1%, 食料品 이 20.7%인데 比해 中共의 경우는 原油와 纖 維製品의 輸出이 大宗을 이루고 있다. 中共의 對日總輸出에서 가장 큰 比重은 原油가 42.3% 를 차지하고 있으며, 纖維製品이 12%로 그 다음을 이루고 있다.

또한 輸入商品構造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鐵鋼(對日總輸入에서 占하는 比重 13.7%), 合 成繊維織物(2.5%), 人造플라스틱(3.4%), 非鐵 金屬(3.0%), 金屬加工機(4.3%), 重電機器(2.2 %), 繊維機械(2.9%) 등이 主宗品目이며 中共의 中共이 2.2%로 우리나라의 市場占有率이 높으며 輸出伸張率面에서도 韓·日 國交正常化 이후인 1966年度와 日·中國交가 正常化된 1972年을 基準으로 할 때에도 우리나라의 對日輸出伸張率이 中共보다 높은 추세를 지속해 오고 있다.

그러나 日·中長期貿易協定 체결을 契機로 日本과 中共의 交易關係가 緊密化함에 따라 우리 나라와 輸出商品構造가 類似하고 產業構造的 側面에서의 開發計劃推進 방향이 비슷한 點 등을 감안할 때 情勢變化에 따른 신속한 對應策이 火 急한 課題로 제기되고 있다.

이런 觀點에서 日·中長期貿易協定이 체결되 기 前인 1977年 현재 韓·中共의 產業構造別 對 日輸出構造를 분석해 보기로 한다.

즉 1977年末 現在 中共보다는 우리나라의 對 日輸出商品構造가 훨씬 高度化되어 一次產品과 2次產品의 輸出比重이 34:66인데 比해 中共의 경우는 69.7:30.3으로 우리보다 매우 낙후된 墾 直貿易形態를 나타내고 있다.

이를 좀 더 具體的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는 一次產品 對日輸出에 있어서 水產物이 大宗을 이루어 76%를 占하고 있는데 反해 中共의 경우는 鑛產物의 輸出이 大宗을 이루어 66%를 차지하고 있다.

2次產品 輸出에 있어서도 輕工業製品輸出과 重化學工業製品의 輸出로 區分하여 볼 때, 韓國 의 경우 輕工業製品의 輸出比重이 67%, 重化學 工業製品의 輸出比重이 33%인데 比해 中共의 경우는 輕工業製品의 輸出比重이 85%, 重化學 工業製品의 輸出比重이 15%로 우리나라에 比해 2次產品 중에서도 重化學工業製品의 輸出比重이 낮다.

# Ⅲ. 中共의 農業問題와 韓・中 共競爭關係

中共이「4大現代化」를 推進해가는 過程에서 제일 難題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農業部門이다. 華國鋒이 1個省의 黨書記長地位에서 毛澤東에 의해 副主席으로 발탁된 것도 省레벨에서의 農業問題해결에 成攻하였다 하여 그의 後繼者로指目하게 되었다는 事實만 보아도 毛澤東의 農業問題에 對한 決意를 잘 나타낸 것이라 하겠다. 또한 李先念副首相은 1977年 7月「全國農團基本

表 2 韓・中共의 産業構造別 對日輸出競合關係(1977年 基準)

(單位:1,000달러, %)

產業		4dt 24	5.44 DH F	F1 -1-0181 #25 -1	韓	难 國		中	共	
產業	ŧ	構 造	別	日本總輸入 -	對日輸出額	構成比	占有率	對日輸出額	構成比	占有率
-	次	產	品品	24, 776, 344	731, 100	34. 0	3, 0	1, 070, 777	69. 7	4. 3
軣		產	物	14, 051, 784	118, 187	5. 4	0, 8	286, 895	18.7	2. 0
水		產	物	2, 205, 756	558, 238	26. 0	25, 3	73, 246	4. 8	3, 3
鑛		Ш	物	8, 508, 804	54, 675	2. 6	0, 6	710,636	46, 2	8, 4
Ξ.	氼	產	物	45, 953, 279	1, 417, 207	66.0	3, 1	465, 873	30. 3	1. 0
輕		エ	業	7, 310, 540	948, 667	44. 2	13, 0	398, 032	25. 9	5, 4
重	化	學工	業	38, 642, 739	468, 540	21, 8	1, 2	67, 841	4. 4	0. 2
總			計	70, 719, 623	3, 148, 307	100. 0	3, 0	1, 536, 650	100. 0	2. 2

資料:日本,中共은 日本貿易月表 1977. 12 韓國은 韓國貿易協會, 貿易統計 1977. 10~12.

한편 產業別品目의 日本總輸入에 대한 韓・中共 輸出比重 즉 對日市場의 市場占有率을 보면 一次產品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輸出市場占有率이 3.0%,中共은 4.3%이며 二次產品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輸出市場占有率이 3.1%,中共은 1.0%이다. 二次產品을 다시 重工業製品과 輕工業製品으로 區分하여 그 市場占有率을 보면 輕工業製品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占有率이 13.0%,中共은 5.4%이며,重化學工業製品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輸出市場占有率이 1.2%,中共은 0.2%에 不過하다.

建設會議」에서 現在 中國의 農業은 生產을 手足에만 依存하고 있으며 지난 28年間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껏 豫定目標에 달하지 못했다고 批判하면서 7億이라는 農業人口가 있음에도 農業生產은 여전히 不足상태에 있다고 指摘한 바 있다.

中共이 食糧문제로 심각한 곤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은 外穀의 導入狀況을 보아도 쉽게 알수 있다.

지난 77年度 中共이 카나다, 오스트렐리아, 알젠틴 등으로부터 導入한 糧穀은 約 700萬 t 에 이르고 있는데 이것은 中共政權 樹立이래 最大 의 輸入量이다.

이로 因해 中共은 糧穀輸入에 約 10億달러를 사용했는가 하면 12萬 6千t의 砂糖輸入에 2億 달러를 쓰는 등 77年度 食糧輸入에 支出된 總額 은 76年度의 中共總輸入규모의 約 25%를 차지 하고 있다.

이와 같이 農業生產의 不振으로 因한 食糧輸入의 累增현상은 國際收支의 赤字로 나타나 「4 代現代化」에 필요한 各種 플랜트의 導入을 저해하는 障害要因으로 作用하고 있다.

中共 農業의 落後性은 2億 5,000萬名의 人口을 갖고 있는 蘇聯이 約 2億t의 食糧을 生產하고 있는데 比해 9億의 人口를 갖는 中共이 2億 8,000萬 t (1977年)을 生產하고 있는 점을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華國鋒政權은「4代現代化」중에서도 農業의 現代化를 經濟開發의 最優先順位에 두고 農業投資의 擴大,農業信用貨付制실시, 農產品 과 土產品價格의 均衡조정,農產品의 質과 量의 向上,食糧買上 政策의 固定化 (5年間),人民公 社 生產隊의 企業化축진 등 諸般政策을 내세우 고 農業振興에 拍車를 加하고 있다.

이러한 政策과 併行하여 中共은 밤을 비롯한 건조야채, 새우, 대합, 生糸 등 日本의 輸入需要 가 큰 각종 農產物의 對目輸出에 熱을 올리고 있어 우리나라와 中共간 日本市場에서의 農產物 競爭關係는 2次產品에 比해 더욱 深化될 要因들 이 많이 內包되어 있다.

1977年현재 農產物 輸出市場으로서의 日本市場을 개관해 보면 다음과 같다.

1977年度 日本의 總輸入規模 707億달려 가운데 農產物輸入이 140億달려, 水產物이 22億달러로 도합 162億달러에 이름으로써 全體輸入의 約23%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韓國과 中共의 對日 農水產物 輸出規模 (1977年度)를 比較해 보면 農產物의 경우 中共의 對日輸出은 2億8,700萬달러로서 우리나라의 對日輸出 1億1,800萬달러의 約 2.4倍에 이르고 있으며 水產物은 우리나라가 5億5,800萬달러인데 比해 中共은 이의 約 13%에 불과한 7,300萬 달러의 輸出實積을 갖고 있을 뿐이다.

이에 따라 中共의 對日 農產物 市場占有率은 2%인데 比해 韓國은 0.8%로 劣勢에 있는 反面 水產物의 경우는 韓國이 25.3%이고 中共은 3.3%에 그치고 있다.

이를 韓國과 中共이 다 같이 日本에 1,000달러이상 輸出한 實績이 있는 品目을 대상으로 細部品目別로 分類하여(BTN code NO 7digit 大基準)競爭關係를 보면 첫째 現在 우리나라와 中共間에 日本市場에서의 個別品目別 市場占有率이 各己 最低 10% 以上 80%되는 競爭이 심한 品目數가 77個인데 이의 大部分이 繊維類와 一部 水產物이다.

그리고 現在로서는 우리나라의 對日市場占有率이 絕對的으로 優位에 있지만 앞으로 中共의輸出增大가 豫想되는 品目數가 166個인 것으로 把握되고 있으며 이의 大部分도 몇개 品目을 除外하고는 纖維類와 一部 農水產物이다.

前述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對日農產物輸出에 있어서는 規模面에서 우리가 劣勢에 있음을 否認할 수 없는 立場에 있으나 水產物의 경우는 우리나라가 比較 優位에 있다.

즉 1977年 基準 日本市場에서 韓國이 優位에 있는 農產物을 白蔘을 비롯하여 야채 및 과실, 버섯 등과 삼치, 새우, 게 등 14個의 品目이며 中共이 絕對優位에 있는 것은 大黃, 五倍子 등 漢藥材類와 밤, 호두, 고추, 가지 등 16個 農產物이다.

	表 3 日本市場에서 韓國이 受位에 있는 主要品目(1977年 최		(單位:%)
вти	品目	韓國의對日 市場占有率	中共斗對日 市場占有率
12—07—972	自 蔘	97.6	0.5
03-01-253	삼 치 (신선한 것)	92. 9	0.3
0301278	기 타 어 (냉동)	51, 1	2. 3
0301232	고등어, 정어리, 전광어, 꽁치(냉동된 것)	49. 7	0, 02
21-07-221	調製食料品(해삼, 헤파리등)	49. 2	2, 0
<b>03</b> —01—261	기타생선(생선 혹은 냉장)	49. 2	0. 2
20-01-290	야채 및 과실(식초로 가공한 것)	42.6	0.5
03—03—120	새우(기타)	37. 2	0. 2
1405129	해초(건조한 것도 포함)	32, 5	0.9
03-01-273	잘치(냉동)	30, 8	2. 5
20—02—261	버 섯	30, 0	8. 4
03-03-211	게(살아 있는 것, 신선, 냉장 또는 냉동)	22. 1	0, 2
03—03—213	오징어(다포함)	19, 2	0. 2
1605211	새 우	14.7	3.7
	表 4 日本市場에서 中共이 絕對통位에 있는 主要品目(1977年基準	i)	(單位:%)
B T N	品目	中共斗對日 市場占有率	韓國의對日 市場占有率
12-07-820	大 黄	99, 3	0. 2
13-01-210	오배자	91. 8	7. 2
0805010	빞	87, 5	9. 2
50-03-110	기타생사	81.3	0, 1
07—06 <del>—</del> 090	고구마등	79.5	7.4
05-02-100	돼지털	79. 4	0.7
4302020	<b>室</b> 刃毛皮	63, 0	7.5
2006289	볶은 낙화생	60. 9	9.6
0704090	건조야채	60. 9	4. 1
0805200	호 두	55, 7	0.7
09—04—219	고 추	49. 2	3, 3
07—03—010	가 지	42. 5	5.1
24—01—110	역연초 -	27. 7	4.9
05—07—200	羽毛皮 및 其他羽皮	27. 7	0.1
57—10—010	第57 03號 9黃麻	11.8	0, 2
02—02—010	닭(냉동된 것 포함)	10. 1	0, 1
	表 5 日本市場에서 輸出競争の 심한 主鄭品目(1977年基準)	韓國의對目	(單位:%) 中共의對日
B T N	品	市場占有率	市場占有率
2107110	인삼 및 그 에키스포함 식료	76. 9	26. 9
5002223	생사(26/29사)	57. 1	41.0
0704020	- <del>五</del> 五	55. 3	43. 3
0407110	성계	51, 1	19.9
1208239	식용해초(기타)	47. 3	47, 3
03—01—272	삼치(냉동)	46. 0	27. 7
50-02-222	생사(20/22사)	40. 8	48, 0
5002221	생사(2A급) 20/22사	34. 9	58, 3
11-02-290	穀物	34. 8	56, 5
20—02—261	에 성 	29.6	16, 2
05-03-000	馬毛	20. 3	30, 8
03—03—215	대 합(다포함)	20. 2	66, 4
50-03-220	생사 악질품	20. 1	79, 9
07—03—090	야채(일시적으로 저장한 것) ruce tr	16. 2	27. 8
14—05—200	雁 皮   ロ   ロ   ロ   ロ   ロ   ロ   ロ   ロ   ロ	15.6	12, 8
0701310	야. 과	12.0	11,5

한편 韓國과 中共間 對日輸出에서 競合度가 심할 것으로 보이는 品目은 16個로 生米를 필두 로한 표고, 성계, 해초, 삼치 등인 바 이들 品目 은 日・中修交를 계기로 經濟外的 要因들에 의 해서도 상호간 交易量 增大에 각별한 努力을 傾 往하고 있는 징후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 Ⅳ. 中共의 輸出潜在力과 展望

中共의 世界戰略上 政治的 側面에서의 日本의 位置와 더불어 「4代現代化」와 關聯한 農業部門 의 停滯등 經濟的 側面에서 中共이 안고 있는 當 面課題를 해결해 감에 있어서 日本의 比重은 莫 重한 바 있다.

이러한 客觀的 與件 등을 감안할 때 中共의 對 日 農水產物 輸出增大에 對한 熱度는 날이 같수 록 加熱化될 것이라는 것은 疑心할 餘地가 없다.

특히 中共이 現在 韓國보다도 豊富한 資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劣勢에 있는 水產物부분에 對한 中共의 本格的인 對日進出은 눈앞에 다가선 感을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中共은 現在 韓國보다 農產物의 輸出에 있어서는 比較 優位에 있으나 그들의 輸出餘力 등을 고려할 때 生 糸를 비롯한 야채, 곡물, 포고, 人蔘 등 數個品目에서의 우리나라 輸出과의 競爭關係는 날이 갈수록 深化될 것으로 展望되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競爭關係가 격화될 것으로 豫 想되는 食料品 중 魚介類와 原料品 중의 生糸를 中心으로 中共의 資源分布와 生産力 등을 기초로 앞으로의 사태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첫째, 魚介類의 경우 中共의 海洋水域은 北에서 南까지 全長 14,000餘km로서 陸地面積인 147萬km²의 比等하며 全世界 總漁場面積의 約 23%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黃海, 東海, 西南海, 渤海 등 4大漁場에 서식하고 있는 海洋魚類만도 1,500種이상에 이 르고 있으며 河州湖沿의 淡水魚도 상당한 種類 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77年 中共의 水產物 生產量은 約 1,450萬/線에 이른 것으로 推定되고 있으며 특히 目本市場에서 우리나라가 絕對優位에 있는 새우, 게 등甲殼類의 增產에 拍車를 加하는등 輸出增大에 노력하고 있어 우리의 優勢를 뒤쫓는 主要品目으로 등장하고 있다.

現在 中共은 農產物部門에서의 沈滯를 탈피하는 起爆劑로 魚介類의 生產增加에 力點을 두고 매진한 결과 상당한 效果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運搬裝備의 不足(冷凍船 등)으로 對香港輸出에 主力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對日輸出에 많은 지장을 빚고 있는 것으로 分析되고 있다.

따라서 中共의 魚介類 輸出能力은 運搬手段의 强化여하에 따라 日本市場에서의 우리나라 水產 物과의 競爭關係는 今後 더욱 激化될 展望이 짙 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둘째, 生米는 現在는 물론 앞으로도 日本市場을 포함한 美國, 유럽市場 등에서 韓·中共間 競爭關係가 가장 심할 것으로 展望되는 品目이라할 수 있다.

中共은 自然條件에서 일부 低地帶와 多濕地帶 를 除外하고는 거의 全國的으로 養蠶에 適合한 條件을 갖고 있는 것으로 評價되고 있다.

특히 浙江, 江蘇, 西州, 廣東의 4省을 中心으로 柔蠶의 경우 四川, 廣東省에서는 4季節을 통해 養蠶이 가능하여 年 8回의 收穫을 올릴 수 있는 好條件을 갖추고 있다.

뿐만 아니라 增產을 위한 技術開發에도 상당 한 發展이 있어 그 實効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蠶部門에 對한 活用이다.

**香 潘陽農學院斗 圓東市蠶業科學研究所 引 共** 同으로 연구개발한 것으로 中性子를 柞蠶의 알 에 비쳐 新陳代謝를 촉진시킴으로써 增產效果를 거두었다는 것이다.

이런 方法으로 最低 8%, 最高 55%까지의 增 產이 可能하다는 것이며 平均 28%內外의 增產 效果를 올릴 수 있었다고 하는데 1979年度 현재 中共의 生糸 生產量은 約 17,000M/T에 이를 것 으로 推定되고 있다.

中共의 生糸와 關聯하여 우리의 關心을 끄는 것은 우리나라와의 競爭關係에서 地域的으로 가

알려지고 있는데 그 代表的인 例가 放射線의 養 장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品目의 하나라는 事 實이다.

> 즉 中共 生糸의 輸出對象國을 보면 日本과 이 태리에 集中되어 있으나 이 밖에도 西獨, 스위스, 英國, 佛蘭西 등이 主要輸入國으로 되어 있다는 點과 유럽諸國의 生糸需要는 漸減一路에 있는 反面 日本의 輸入需要는 약간 鈍化되는 傾向을 나타내고 있으나 經濟外的 作用등에 의해 상당 히 旺盛해질 與件下에 있는 점등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對日 生糸輸出은 日•中友好條約締 結과 關聯하여 波及되는 충격파가 가장 심하게 미칠 品目중의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겠다.